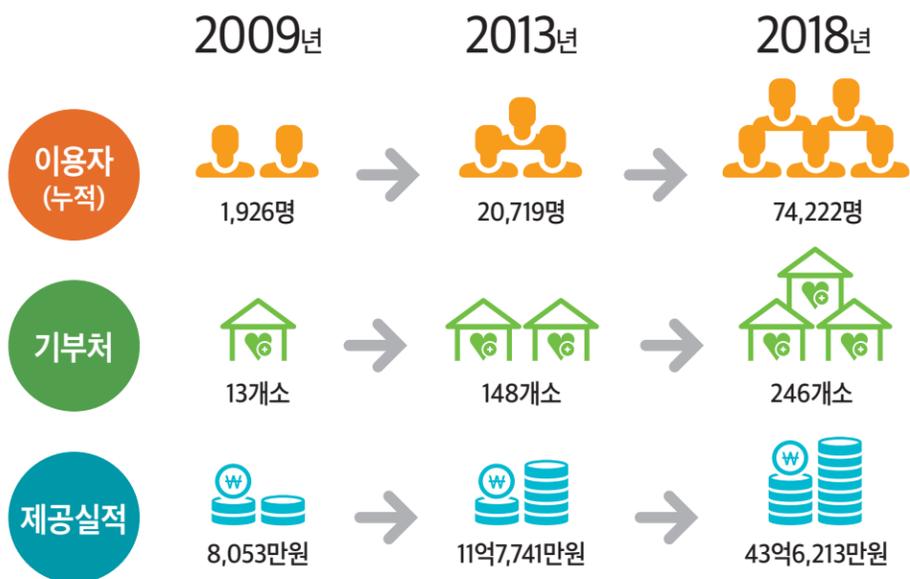


제주사회복지신문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개점 10주년 기획 특집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자리매김

10년 간 총 43억 규모...7만4천여 명 이용 기부 물품 · 이용자 증가로 매장 확대 절실

지난 2009년 6월 17일, 제주 1호점으로 개소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이 개점 10주년을 맞았다.

10년 전 개점 당시 1,926명 이었던 이용자는 지난해까지 74,222명(누적인원)으로 늘어났고 제공실적은 2009년 8,053만원에서 2018년 43억6,213만원(누적금액)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10년 전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개점 당시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1시간 여 만에 식품이 동나 당황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

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했다.

현재는 정기 기부업체와 개인의 식품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져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은 한 이용자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3개 품목 외에 서비스 식품까지 양손 가득 들고 갈 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전담인력이 2명으로 증원되고 사회복지무요원이 배치되는 등 마켓의 안정적

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지난해 전국 사업장 평가에서는 도내 최우수사업장(A등급)으로 인정 받는 등 제주시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사랑나눔푸드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도 늘고 기부식품도 늘었지만 매장규모와 환경은 10년 전과 변함이 없는 상태라며, 매장 새 단장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홍보를 통해 기부업체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의 선호하는 식품과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도내 첫 고령장애인 시설 개원

송향원, 특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

제주도내 최초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라원(대표이사 김금자)은 지난달 27일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개원식'을 개최했다.<사진>

송향원은 만53세 이상 법정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 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특화된 요양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개소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행

정자치위원장과 도의원,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관련 관계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 보호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은 내빈소개, 송향원 신축 유공자 감사패 전달, 격려사, 시설 현판 제막식, 시설 소개 및 라운딩 등으로 이어졌다.

김금자 대표이사는 "송향원은 조기노화를 겪고 있는 만53세 이상의 장애인부터 고령의 장애인까지 노화로 소외되고 퇴행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지내며 나이에 맞게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제주사회복지신문 발전 방향 모색	■ 특집 7면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개점 10주년 기획 - 정기기부자 인터뷰
■ 사회복지소식 4면 '천사나라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 기획- 시설탐방(105) 8면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별세하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故 고치환 회장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애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후의에 보답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및 임직원 일동

제주도의의 의정소식

복지사각지대 시청각장애인 지원 추진

고현수·좌남수 의원 ‘헬렌켈러 조례안’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면·추자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합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서 세상과 단절되는 가장 혹독한 장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념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현황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약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 이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과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시청각중복장애인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현수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 전무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성황’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달 18일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청소년 만세(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세상)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11개 자치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와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900여 명의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이날 축제에서는 청소년 버스킹 공연과 역사, 환경, 놀이, 3D 모형

만들기, 먹거리, 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선용 캠페인 등 16개의 체험부스와 이벤트 마당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2번째 열린 이번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축제는 앞으로도 제주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치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를 통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며, 올해 9월에 한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도모한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행복한 협동공동체를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지난달 10일 자활근로사업단인 ‘마켓프레쉬’ (Market Fresh)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제주시 연동(제주시 과원로 84)에 문을 연 ‘마켓프레쉬’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하나다.

‘마켓프레쉬’는 신선한 제

주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과 자활생산품 등 사회적 경제 제품을 판매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날 개소식에는 고희범 제주시장, 고현수 제주특별

자치도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경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4. 6. 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457명)을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19.7.1 ~ '20.6.30(1년)까지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

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 파절제외) 7만원이다.

대상자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14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문화도시추진위 김범훈 위원장 선출



김범훈 본지 편집위원이 제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3일 시청 제1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범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5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216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232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제빵142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101모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611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670봉 ▲모양=빵353봉 ▲미인빵=빵76봉 ▲비엔누아즈=빵91봉 ▲정필이오메기=떡30개 ▲삼새방앗간=떡762개 ▲파파무베이커리=빵38봉 ▲제주원유통=200개 ▲제주보리촌=67개 ▲신제주식품=8개 ▲이든이네=8개 ▲금강수산물유통=75개 ▲제주농연=300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60,000	28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55,000	355,000
복지사업후원	995,000	543,300
푸드마켓후원	3,030,000	40,00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부형중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제주사회복지신문 발전 방향 모색

지난달 14일 제5기 편집위원 11명 위촉식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4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제주사회복지신문 제5기 편집위원 위촉식 및 2019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위촉식에서는 제5기 편집위원회(위원장 고봉식)에 위촉되는 11명의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편집위원회는 제

주사회복지신문 발행계획 소개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개선점, 좋은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고봉식 위원장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제주도내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편집위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이었다."며 "앞으로 도 신문이 발전을 위해 노

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편집위원 임기는 2019년 5월 1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2년이다.

다음은 편집위원회 명단
 위원장=▲고봉식(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위원=▲고보선(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수희(평안전문요양원장) ▲고현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길웅(수필가, 시인) ▲김범훈(사)Geo-jeju 연구소 소장 ▲김정득(제주사회복지연구원장) ▲문익순(수필가)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영조(산림치유사) ▲현인숙(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상 11명.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국제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지난달 27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2019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세미나는 최근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증가와 돌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세대통합,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안 및 정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텍 황은주 교수가 '생애주기 친화적 지역사회 통합 케어

모델'을, 일본 복지대학대학원 노구치사다히사 교수가 '건강장수 사회를 위한 일본의 노인 지역포괄케어와 기본서비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박사가 '제주지역의 노인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쟁점'을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생애설계협회 최성재 회장의 주재로 국내학계 및 제주도 관계자 등 5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의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다.

자원봉사자·후원자 통합의 장 마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서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9 자원봉사자·후원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고춘희)가 주관하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약 200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체육대회는 1~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로는 복지관 기타 동아리 '시나브로'의 공연과 아동줄넘기 댄스, 줌바댄스를 통한 몸풀기 활동이 2부 체육대회에서는 사랑, 봉사,

희망, 친절 총 4팀으로 나눠져 재기차기 왕중왕전, 복불복달리기, 바구니 공 넣기 등 다양한 팀별 대항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이어 3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대상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조성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은 "행사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느라 수고가 많았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좋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역아동센터 독서 친화적 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단장 진은경)은 오는 8월까지 'JDC책가득 꿈가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센터별 맞춤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의 독서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문화 축제, 지역아동센터 부모와 종사자의 독서지도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별 맞춤 독서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 35곳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이 마음을 열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무대행사와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창의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도서문화축제는 지난달 14일(구좌체육관), 25일(서귀포 문부공원)개최됐으며 오는 15일에는 제주 중부 JDC 문화공간 낭에서 열린다.

이어 부모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4월 19일 1차 연수를 진행했고,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4일까지 2차 마음치유 글쓰기의 실제 연수를 실시한다.

혜정원, '아가곶드래'로 명칭 변경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가 곶드래(원장 이민숙)'로 시설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가 곶드래는 지난 2000년 개원해 19년여 동안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명칭은 그리스어 '아가(Aga)'와 곶고 변함없

는 제품을 드린다는 의미의 '곶드래'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민숙 원장은 "아가 곶드래는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이름"이라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곶고 변함없이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공하는 아가 곶드래가 되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2회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열린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양정심)은 오는 15일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화천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파크골프대회는 장애인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는 4개 종목(2인조 남자, 2인조 여자, 4인조 혼성, 지적자영인부)으로 나눠 치러지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등 비장애인도 출전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파크골프 활성화 및 장애인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희엘, 지난달 10일...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희엘(이사장 배정미)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612(중산간동로 837-53)에서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사진>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날 개원식에는 고

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해 고현수·김경미·한영진·현길호·고은실·강성의 제주도의원, 최은미 제주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식은 지적장애인 권리선언문 낭독(보호자), 축하공연, 개원 기념인사, 축사, 테이프 컷팅 등으로 이어졌다.

현재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에는 이사장 포함 전체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명의 장애인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추후 센터는 이용 인원을 1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정미 이사장은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라는 편견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이용자도 늘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식/마/당 (무순)

가족상담사 양성교육수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0일 협의회에서 ‘2019년도 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가족상담사 양성과정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복지 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 단체표창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달 20일 법무부 주관 서울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인의 날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착지원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중증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문정신)는 올해 2019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예술교육은 3·1운동 100주년기념 태극기 만들기, 아트활동, 웃음체조와 라인댄스를 통한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의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해피 댄스로 진행된다.

이용자 간 단합의 장 열려



서부장애인복지센터(센터장 안원식)는 지난달 9일~10일 한림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자립생활캠프 동지탈출!’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 봄으로써 자립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었고 팀을 나눠 미션을 수행하면서 단합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제주 사회공헌 아카데미 ‘호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사회공헌 아카데미’ 5월 강의를 지난달 21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개최됐다.<사진>



올해 첫 강연자로 유 훈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센터장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고, 32명의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의 이후에는 네트워크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평가와 다음 강의준비,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 참가한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경영평

가를 준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강의를 통해 가치의 실현은 지역 사회와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 노동존중가게 지정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지난달 1일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브런치카페 ‘위더스트레블(아래1동·사진 왼쪽)’, 커피전문점 ‘파인더(이도2동·사진 오른쪽)’사업장 두 곳을 노동존중가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는



노동권의 침해, 기초고용 질서 위반을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



로 실천하고 있는 업장들을 격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목적을 위해 지정된 것이다.

주민·봉사자·후원자 나들이



사회복지법인 아가(Aga) 아가의집(시설장 방원팔)은 지난달 18일 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하는 ‘봄바람에 봄향기 가득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좌읍에 위치한 워터서커스를 관람하고, 성산읍에 위치한 즉욕체험장에서 즉욕을 체험하고 커피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꾸며졌다.

사회복지헌장 특별강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6일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 날 강연은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유석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강사 본인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 소/식/마/당 (무순)

가정의 달 효도관광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제주순복음교회(담임목사 표순호)와 함께 지난달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노영나영 같이가치 효도관광'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도내 관광지(선녀와나무꾼, 메이즈랜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를 방문해 문화여가생활과 함께 적적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는 지난달 8일 W스테이지(공간나눔운동 C!here)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눔음애 봄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날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과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 가족의 정을 나눠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응급상황 시 대처법 습득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달 7일 화북119소방파출소와 연계해 거주 장애인과 직원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순미 화북119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강사가 심폐소생술 이론과 함께 가슴압박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습득, 질식 시 응급 처치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자리로 운영됐다.

천연비누 100개 기부



서귀포시는 귀농귀촌 교육생들과 함께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활동은 서귀포시 귀농귀촌 교육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에서 비롯됐다.

지역내 어르신 양말 전달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 초등방과후반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나눔장터를 통한 수익금으로 아라주공아파트내 90세 이상 어르신 16명의 집을 방문해 양말세트를 전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아라어린이집은 매년 작품전시회 시 물품판매를 하고 수익금으로 아라주공아파트내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내복 사드리기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중증발달장애인 재능 개발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부설 서귀포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전재순)는 오는 11월까지 이용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로이드 사진 교실을 진행한다.

사진교실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플라로이드 사진촬영을 통한 성취감 느끼며 비장애인과 소통과 장애인인식개선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 연주회 개최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는 지난달 1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센터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망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작은 연주회를 열고 플루트, 부채춤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함께 센터에서는 아동들이 석고방향제와 카네이션을 만들어 지역내 복지관과 노인센터 등에 전달하는 등 어르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힐링을 위한 '한 마음, 한 뜻 직원들의 하나 되는 마음의 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가파도, 새별오름, 금능해수욕장 올레길 등을 찾아다니면서 직원 간의 유대감 강화 및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지적 발달장애인 목공예 활동 진행



유진 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는 최근 제주 목공아트센터 네모나라에서 이용인을 대상으로 '지적·발달장애인의 목공예활동 나무로 만드는 꿈'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총 24회로 진행되며 목공예 공구를 활용해 대상자의 수행능력을 회기별로 확인하며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해 완성된 다양한 목공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신명나는 어버이 잔치 마련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제주사랑의열매(한림농협하나로마트 지정후원)지원으로 지난 4월 29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명나는 어버이잔치' 행복나들이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 마련이었는데 소풍을 다녀와 즐거웠다. 다른 나들이와 달리 직접 진행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정서적 안정 도모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제주한라대학교 마산업교육연구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척추 주변 근육을 발달시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활의 효과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추억 만들기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 4월 17일 올레길 논짓물 8코스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대한항공 다솜마루 봉사팀과 봄소풍을 다녀왔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우리 친구들의 미소만큼이나 하늘도 화창한 미소를 보내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왔다."며 "모든 식구의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역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연구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던 차에 마침내 그 설립근거가 사회복지 기본조례 규정으로 마련됐다. 그리고 2017년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로 문을 연후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구센터는 출범 첫해부터 의욕적이다.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펼쳐는 사업들마다 알차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는 물론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이 그렇다. 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중

출범 첫해부터 알찬 사업

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이 발표된다.

올해부터는 제주복지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분기별로 하나의 현안을 선정해 발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뤄진다. 그 첫 번째 포럼은 지난 4월에 있었다.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따른 방향설정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곧 발간될 예정인

정기간행물 ‘이슈광’에 담아낼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운영방안 연구를 비롯해 복지기준선도 마련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복지정책 역시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또다시 복지예산과 맞물려있다. 그만큼 복지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전년보다 12.4%가 늘어난 1조1,314억 원에 이른다. 제주도 전체 예산의 21.1%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특히 이들 예산들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행정주도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자칫 중복 지원 등 예산 낭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는 지원해야 할 곳을 빠뜨리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거나 다양한 복지수요에 걸

복지계 발전 밑거름 기대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물론 그런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아직은 연륜도 짧다. 그렇지만 알찬 연구실적들이 정책에 차곡차곡 반영된다보면 결국에는 제주사회복지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연구센터의 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 영 조
산림치유지도사

기고

천원의 행복 ‘시간제 보육서비스’



오 효 선
제주시여성가족과 과장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병원 진료, 외출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보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줄 엄마들을 위한 육아 희소식,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있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편리한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시간제 보육료는 월 80시간까지는

정부에서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되므로 시간당 1천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4천원으로 추가 이용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료를 지원 받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인 경우 시간당 4천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

센터(☎070-4009-6566)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10개소에 11개반이 운영중이며, 작년 한 해 934명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어린이집 9개소, 시간제 보육을 통해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심적 부담이 경감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이의 행복을 더한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제 보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이나 대표번호 ☎1661-9361로 하면 된다.

- 故 고치환 회장님을 추모하며

하나님 품속에서 편히 쉬소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산>

협의회에 입사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당시 선배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며 “외부 행사장에서 이사님들을 뵈게 되면 회장님 모시듯 깎듯이 모셔야 한다. 특히 부회장인 고치환 원장님과 김성산 원장님은 각별하게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배의 말은 이사님들 얼굴과 이름조차도 익히지 못해 헤매고 있는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노인복지계 두 어른께 실수라도 하면 제 개인적인 실수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너무 온화하시고 인자했던 두 분은 협의회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살피셨고 협의회 직원들을 제 식구처럼 대해 주셨기에 늘 감사하고 편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두 분과의 인연 속에 고치환 원장님을 협의회 회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치환 회장님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 되신 첫 사례이기에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5·16도로를 넘어오는데 무지개를 봤습니다. 오늘 선거를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을 가려야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무지개처럼 화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 합니다” 라며 시작하던 고치환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 후로 무지개는 곧 ‘우리 회장님’ 이라는 저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장례식장에 회장님을 모신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빛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우리 앞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에 들르신 회장님 방 책상에는 늘 저희들을 위한 기도에 쓰시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마저 꾸미는 것조차 마다하시며 늘 낮고 겸손한 삶을 사셨던 회장님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 이토록 황망하게 회장님을 보내드려야만 하는 죄 값을 회장님께서 품으셨던 사회복지를 위한 큰 뜻을 기리고 이어가는 노력으로 갚아가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버지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세요”라며 회장님 품에 휴한 삼 내려놓던 김성산 원장님의 아드님 김영진 목

사의 바람처럼 근심 없고 고통 없는 좋은 세상에서 김성산 원장님과 지내시며 남아 있는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시다 가끔 무지개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고치환 회장님, 영원히 존경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품속에서 편히 쉬소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개점 10주년 기획 - 장기 기부자 인터뷰

☞ 관련기사 1면

“기부도 진심이 중요해요”



금강축산유통 (대표이사 안 성)

금강축산유통은 1999년도 개업하여 도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 도두동에 위치한 축산유통 업체이다.

▲ **식품기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
제주도에 입도해 육가공 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22년이 흘렀다. 사업 중반기, 어느 날 우연히 시내를 운행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생산하는 식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 곧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전화해 육가공 제품 기부를 시작했는데, 그 때가 푸드마켓이 개소한 2009년이었고 벌써 10년이 흘렀다니 감회가 새롭다.

▲ **식품기부를 하시면서 느낀 점**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저소득, 고령이라는 어려운 상황속에 있지만, 과거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를 풍미하신 분들이다. 젊은 세대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기부를 지속하고 있

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의 식품산업이 크게 성장하며 기부식품의 질적, 양적 측면도 동반성장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위생체계가 확립되어있어 이웃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앞으로의 식품 기부는 다양성과 우수한 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식품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유통기한 임박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기부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 기부는 대부분 일회성 기부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려운 이웃의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따뜻한 진심이 담긴 자발적 기부를 실천하신다면 분명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식품기부를 할 생각이다. 사랑나눔푸드마켓이 10년이 되었고 앞으로 20년, 30년……, 100년까지 운영된다면 우리 금강에서도 마켓이 운영되는 그날까지 식품기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초심 잃지 않는 나눔 실천”



쿵스토어 제주이도점 (대표 김경미)

쿵스토어 제주이도점은 2014년 1월에 제주아이쿵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차입과 출자로 개설했고 현재는 제주/한라아이쿵조합이 설립한 쿵스토어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소비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우리모두의 치유와 힐링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이다.

▲ **식품기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
쿵스토어 제주이도점은 큰 업체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푸드마켓이 운영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4년 1월부터 기부하게 됐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 식품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제빵류 기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식품기부를 하시면서 느낀 점**
정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품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빵류의 경우 해마다 날씨와 기후, 천재지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원재료 값이 폭등하

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런 경우 식품기부업체로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가사생활에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을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여건이 나은 우리가 도움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버리고 기부식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식품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식품기부는 남아서 준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서 나눔을 실천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식품을 기부를 실천하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식품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

▲ **앞으로의 계획?**
사랑나눔푸드마켓이 벌써 10주년이 되었고 쿵스토어 제주이도점도 6년간 식품기부를 유지했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이 생겼다. 처음 식품기부를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저희 업체가 유지되는 한 열심히 식품기부를 실천하겠다.

“식품 기부로 나눔을 전해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식품제조·유통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푸드뱅크·마켓

시설명	사업장명	위치	연락처
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제주시 청풍남8길12-1 (제주사회복지협의회)	759-1377
	북부기초푸드뱅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207-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796-9093
	동제주기초푸드뱅크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15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751-1377
	행복나눔푸드뱅크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56	733-3791
푸드마켓	사랑나눔푸드마켓	제주시 동광로82, 1층	758-1377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56	733-1388

시설탐방

(105)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보조기기를 통한 원활한 자립생활 지원

지난해 하루평균 14명...총 3,624명 이용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다.

센터는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과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보조기기의 대여·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자립·재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열었다.

현재는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 총무지원·사례관리·서비스지원 담당자 등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는 총 3,624명으로 일평균 14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동보조기기부터 보행보조기기, 일상생활보조기기, 착석·자세유지 보조기기, 치료·훈련용 보조기기, 감각(시·청각)보조기

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편의시설 보조기기 레저용보조기기 등 400여종 700개 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종류의 보조기기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와 이용자 상담 상담의 날 운영,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찾아 대여하는 일부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업체연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보조기기 관리 업무, 도내 섬지역 등 지역 특성상 복지서비스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찾아가는 초자와수다~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찾아가는 보조공학 서비스'도 실천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제주도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이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민간자원을 발굴해 서비스 연계 및 소모품을 지급(2019년 상반기 기준 270건)하기도 하고 기관연계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기관연계 맞춤 보조기기 사업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후원사업의 경우 보조기기가 필요한 이용자가 어릴 때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조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3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내 학교나 사회복지 관련 행사장에서 행사 부스를 운영하면서 비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기기 활용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센터의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대여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7.2%, 만족이 17.9%로 나타났다. 또한 대여한 보조기기의 만족도 역시 매우만족이 60.6%, 만족이 36.4%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

만족도 조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불만족 원인이 장기대여를 원하는 욕구와 예약 후 대기 기간이 길어서 불만족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양예홍 센터장은 "보조기기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자립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 없는 환경,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인, 노인들의 삶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1

보호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우리 민법은 만19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법 제5조를 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

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호자와는 다르다.

몇 개의 민법 조문을 더 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모든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용어 사용의 어려움

이나 실생활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부모가 일찍 사망하여 조부모가 어린 손자를 양육하며 보호를 하는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친권자는 부모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미성년후견인이라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이것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이의 부모는 먼 지역에 떨어져 살고 양육을 할머니

가 하고 있다면 친권자는 여전히 부모만 해당이 되고 할머니는 단지 실질적인 보호자일 뿐 손자(미성년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다.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 할머니의 힘으로는 손자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미성년자의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격은 법정대리인이 갖게 되는데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동으로 되며 그 이름이 '친권자'이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정하는 '미성년후견인'이라는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대

신하여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대학생에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는 순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민법 조문에서 보듯 이 개념들은 미성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대학생인 자녀에 대해 부모님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